

가족센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분석*

Analysis of the Operational Status of the Language Development Support Program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t Family Centers

1차원고접수: 2026.04.10. 수정원고접수: 2026.05.27. 최종게재결정: 2026.06.21.

임정하¹ · 백지민² · 문소연³ · 오창미⁴¹고려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²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아동학전공 · 지속가능생활시스템융합전공, 박사수료³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아동학전공, 석사과정⁴한국건강가정진흥원 가족사업지원부, 부장Lim, Jung-Ha¹Baek, Ji-Min²Moon, So-Yeon³Oh, Chung-Mi⁴¹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University^{2,3}Dept. of Human Ecology,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⁴Dept. Family Business Planning, Korean Institute for Healthy Family

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운영 현황과 효과를 분석하여 사업 운영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를 이용해 최근 5년간 연도별 운영 추이를 분석하고 지역별 운영 현황을 비교하였다. 더불어 전국 182개소 가족센터 설문을 통해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나아가 해당사업 실무자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운영의 질적 효과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센터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코로나-19 이후 지원 횟수가 빠르게 회복되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지역별 진행 횟수 측면에서 비교적 균등하여 전국적인 서비스 접근성이 확보되고 있었다. 수혜 아동은 미취학 아동이 대부분으로, 이들은 평균 17개월의 장기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서비스는 언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가족 기능 전반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왔다. 본 연구는 이 사업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조기에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로서 직접적으로는 아동의 전인적 발달을, 간접적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과 통합에 기여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주요어 다문화가족, 언어발달지원사업, 아동 언어발달, 가족센터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operational status and effectiveness of the Language Development Support Program for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evaluates its outcomes. Using annual program reports from Family Centers, this study analyzed five-year trends in program operation and compared regional patterns of service provision. In addition, a nationwide survey of 182 Family Centers was conducted,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arried out with seven program practitioners to examine qualitative outcomes. The findings indicate that service provision, which temporarily declined during the COVID-19 pandemic, recovered rapidly and has since remained stable. Program operation was relatively consistent across regions, suggesting equitable access to services nationwide. The majority of beneficiaries were preschool-aged children who received sustained, long-term intervention. The program improved children's language abilities and contributed to positive changes in overall family functioning. Overall,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gram functions as an early intervention service that supports language development amo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e study confirmed that the program contributes directly to children's holistic development and indirectly to the social adaptation and integra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Keywords *multicultural families, the language development support program, child language development, family center*

* 본 연구는 2025년 한국인간발달학회 추계공동학술대회 포스터 발표 연구를 수정 · 보완한 것임.

본 연구는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한국건강가정진흥원) 보고서에서 일부 발췌 및 수정하였음.

Corresponding to 백지민(Baek, Ji-Min)

고려대학교 대학원 생활과학과 아동학전공 · 지속가능생활시스템융합전공, 박사수료(Interdisciplinary Program in Sustainable Living System, Graduate School of Korea University) E-mail, caramin@korea.ac.kr

Copyright © 2026 The Korean Association of Human Development. All rights reserved.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언어는 정보를 교환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으로서, 인간의 삶에서 매우 중요하다. 보통 5세 정도가 되면 모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게 되며, 아동기 동안 다양한 언어능력을 획득하면서 언어적 유능성이 형성된다(정옥분, 2015). 이 시기 언어발달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업 수행과 또래 관계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부적응이 장기적으로 누적될 가능성이 높다(박순희, 2009; 양윤희, 2024). 언어발달에는 급속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결정적 시기’가 존재하므로 12세 이전의 적절한 자극과 개입은 아동 생애 전반에 매우 중요하다(Arbib, 2017; Friedmann & Rusou, 2015; Lenneberg, 1967).

특히 다문화가족 자녀들은 가정 내 언어 환경의 이중성, 부모의 한국어 능력 부족, 제한적인 언어 자극 그리고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의 불균형과 같은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언어발달에 취약성을 가질 수 있다(박은정, 2022; 유민애, 2018). 부모의 언어사용 방식은 아동의 언어발달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데(De Houwer, 2007),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부모로부터 언어를 모델링해야 하는 경우, 제공되는 언어 자극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자녀의 언어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선행연구(황상심, 정옥란, 2008)에서도 다문화가정 내 어머니의 한국어 능력이 우수할수록 자녀의 언어발달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다문화가족 자녀는 비다문화가정 아동에 비해 언어발달 측면에서 높은 취약성을 보이기도 한다(강해수, 최소영, 2020; 장희정, 김가림, 황민아, 2025). 따라서 이들이 마주한 구조적 불리함을 완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다문화가족실태조사(여성가족부, 2025a)에 따르면 이민자들이 한국생활에서 언어 문제에 대한 어려움을 높게 인식하였으며, 특히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의 어려움을 주요한 부담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많은 부모가 언어적 장벽으로 인해 자녀에게 한국어를 직접 지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시사한다. 부모의 언어 지도 어려움은 자녀의 발달을 저해하는 환경적 제약으로 작용하여 학업 성취 저하와 사회적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김영은, 2014; 정경림, 김선미, 윤상용, 2022). 국제결혼과 이주 배경 인구의 확대로 다문화가족의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24년 기준 전체가족의 약 2%에 도달했음을 고려할 때(통계청, 2025),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성평등가족부 산하 가족센터에서는 2009년부터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다. 2021년부터 추진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 ~ 2025)에서도 ‘모든 가족의 안정적 생활 여건 보장’이라는 핵심 정책 기조 아래,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 역량 강화를 주요 국정과제로 명시하고 있다(여성가족부, 2021). 이와 같은 국가적 정책 기조에 따라 본 사업은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을 돕는 핵심적인 제도적 장치로 자리 잡았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12세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아동의 언어발달을 지원한다(여성가족부, 2025b). 본 사업은 전액 무료로 운영되며, 아동 1인당 6개월 단위로 최대 3회(총 18개월)까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처음 방문한 아동과 부모는 초기면담을 받게 되며, 이후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및 교육의 총 3가지 서비스를 받게 된다. 먼저 언어평가는 초기 상담을 통해 아동에게 적합한 평가도구를 선정하고 교육 초기, 중간, 종료, 사후 단계에서 언어발달 수준을 진단한다. 언어교육은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의 발달 수준에 맞춘 어휘 및 구문 발달을 촉진하고, 사회적 의사소통 능력 및 읽기 능력 향상 프로그램이 수행된다. 동시에 지속적인 부모 상담과 간헐적인 부모 교육을 통해 가정 내에서도 자녀의 언어발달을 효과적으로 조력할 수 있도록 양육 역량 강화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다층적 지원 체계를 기반으로 본 사업은 국가 차원의 대표적인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지원

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그러나 약 16년간 전국적으로 시행되어 온 장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본 사업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효과를 내고 있는지에 대한 실증적 평가는 미비한 상황이다. 한국건강가정진흥원(2017)은 2016년까지 매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과보고서’를 발간하여 사업 만족도와 아동의 언어교육 전후 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2016년 이후에는 본 사업의 결과 보고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결과보고서’(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4)에 흡수되면서 운영 기관의 실적 중심 보고로 전환되어 언어평가 및 교육 횟수 실적 보고에 그치고 있다. 이는 본 사업의 연도별 변화, 지역 간 편차, 개입 효과와 같은 핵심 지표에 대한 실증적 정보를 파악하기에 제한적이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은 본 사업에 대한 효과성을 파악하기보다 사업 평가를 위한 척도 관련 연구(박소연, 홍성만, 2016; 임정하, 김경은, 민성혜, 김리진, 정은미, 2013)이거나 아동의 언어사용 실태나 영향에 관한 연구(김수진, 2015; 황상심, 강복정, 2016), 언어발달지도사들의 요구를 분석한 연구(황상심, 2017)들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효과성을 파악하는 데에 제한이 있다. 심층면담을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효과성을 파악한 연구(김수진, 윤철수, 2015; 정경희, 황상심, 배소영, 김미배, 2015) 역시 2015년 이전 질적 연구에 머물고 있어, 2016년 이후 사업의 전반적 운영 현황과 효과성을 통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따라서 언어지원 서비스가 확장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 사업의 정책적 위치를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 시대의 변화 속에서 가족지원 복지서비스는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본 사업이 처음 시행되던 시기와 달리 다문화가족과 아동발달을 위한 서비스가 확대되었다(여성가족부, 2025b; 최은영, 2015). 또한 코로나-19 시기에는 대면 상호작용 감소와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언어발달 지연 문제가 대두되면서 언어지원 서비스의 중

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박희현, 최은영, 이영애, 202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사업이 현재 어떠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자 한다.

특히 코로나-19 전후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추이 분석은 단순한 시계열 비교를 넘어 본 사업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적 효과를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최근 5년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이 적용된 시기로, 국가 차원의 정책 목표가 실제 사업 운영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를 검증할 수 있는 시기이다. 더불어 2020년은 전 지구적 팬데믹으로 인해 대면 서비스가 급감하고 비대면 전환이 이루어진 변곡점이었다. 언어발달의 결정적 시기에 있는 아동들이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상호작용 감소로 인해 발달적 위기를 겪었음을 감안할 때, 지난 5년간의 데이터는 단순한 통계수치를 넘어 사업 운영의 필요성을 재확인해 준다.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전환, 이후 대면 서비스의 회복 과정, 그리고 유사 서비스의 확대 등 급격한 환경 변화 속에서 본 사업이 어떻게 적응해 왔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먼저, 연도별 운영 추이를 살펴봄으로써 운영 체계의 안정성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지역 규모별 운영 현황 비교를 통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서비스 격차와 형평성을 진단할 필요가 있다. 사회서비스의 제공 효율성과 인프라 구축 수준은 해당 지역의 전체 인구 규모 및 행정 역량과 밀접하게 맞물려 있다. 이는 지역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질적 차이를 결정짓는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인구가 밀집된 대도시는 전문 인력 확보와 접근성 측면에서 유리한 반면, 인구 감소 위기를 겪는 소도시는 물리적 거리와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서비스 공급의 한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지역 규모와 사회적 환경에 따라 서비스 전달 체계가 상이하게 작동할 수 있음을 고려할 때, 지역 유형별 운영 현황을 정량적으로 비교 분석하는 과정이 중요할 수 있다. 이에 2024년 지역별 운영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지역 규모별 운영 격차와 이에 따른 수혜형평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실무자의 경험적 판단을 중심으로 한 질적 분석을 병행하여 운영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재의 사업 보고 체계가 교육 횟수나 인원 등 정량적 실적에 치중되어 있어 실제 현장에서 아동과 가족이 겪는 질적인 변화와 성과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정량적 수치는 교육 횟수와 참여 인원을 보여줄 수 있지만 사업이 아동과 가족의 삶에 실제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는 실무자의 현장 경험 속에 존재한다. 수혜아동의 부모, 조모, 교사, 언어발달지도사를 동시에 심층 면담한 선행연구(정경희 등, 2015)에서 다양한 참여자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탐색하였으나 전문적 판단을 근거로 한 심층적 분석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본 사업이 언어평가를 기반으로 언어발달지도사가 수혜 아동의 개선 정도와 종결 여부를 판단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무자의 전문적 판단은 사업 효과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근거가 된다. 따라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운영자의 의견을 통해 사업의 효과와 보다 폭넓은 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다. 더불어 본 사업이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언어발달지도사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 간 운영 차이를 반영하여 언어발달지도사와 비지도사를 포함한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함으로써 현재의 양적 성과 지표가 담아내지 못하는 사업의 실질적 가치를 발굴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가족 자녀가 언어발달측면에서 직면한 복합적인 취약성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실적 중심의 보고를 넘어 사업의 실질적인 정책적 역할과 성과를 다각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강조된 조기 개입의 중요성, 가족 및 환경 요인, 그리고 서비스 접근성 측면을 모두 포괄하여 본 사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다차원적 분석틀을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코로나-19 등의 위기 속에서도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운영의 지속성’, 둘

째, 전국적 전달체계 및 지역 규모에 따라 수혜가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지를 점검하는 ‘서비스 접근성과 형평성’, 셋째, 언어발달 민감기를 고려한 조기 개입과 생활 맥락 연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는지를 보는 ‘개입 방식의 적절성’, 넷째, 아동의 전인적 발달 촉진을 넘어 부모 상담 및 교육을 통해 가족 기능의 긍정적 변화까지 이끌어내는 ‘통합지원체계의 기능성’이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분석틀을 바탕으로 최근 5년간의 양적 운영 추이와 실무자 심층면담을 통한 질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단순한 현황 파악에 머무르지 않고,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지니는 정책적 타당성과 지속 필요성을 재확인하는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나아가 본 연구는 장기간 운영되어 온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정책적 의미와 향후 운영 방향을 검토하고, 보다 지속 가능하며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문제

연구문제 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최근 운영 현황은 어떠한가?

연구문제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실무자가 인식하는 운영 효과는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네 가지 분석 차원을 상호보완적이고 심층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양적·질적 자료를 결합한 혼합방법(mixed-methods) 설계를 적용하였다. 먼저, 운영의 지속성과 서비스 접근성 및 형평성 측면은 문헌분석과 운영자료 분석을 통해 최근 사업 운영 추이와 지역별 현황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사업 운영 성과를 파악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개입 방식의 적절성과 통합지

원체계의 기능성 측면은 양적 자료와 질적 자료를 함께 활용하여 교차 검증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실제 효과와 의미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을 운영하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사업 운영실무자 대상의 반구조화된 온라인 심층면담에서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운영 실태와 질적 효과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심층면담은 사업 운영 기간 및 실무자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추천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고 2025년 7월 중순부터 7월 말까지 실시되었다. 이와 함께 전국센터 사업실무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설문조사를 통해 심층면담의 결과를 양적으로 확인하고 효과분석의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협조를 받아 공문 발송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한 전국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대상으로 2025년 8월 초부터 중순까지 실시되었다.

2. 분석자료

운영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문헌분석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문헌분석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2020년~2024년에 발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결과 보고서 내 사업 운영 성과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연도별 운영 실적 추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역별 운영 실적 현황 분석은 2024년 사업 운영 실적을 사용하였다. 이때 지역별 운영 실적은 총 17개 권역별로 살펴보고,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인구 수를 기준으로 대도시(21개소), 중도시(129개소), 소도시(40개소)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에는 본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가족센터 213개소 중 182개소(응답률 85.4%)가 참여하였다. 지역별로 볼 때 참여 센터는 경기도가 12.6%(23개소)로 가장 많았고, 세종시, 울산시, 제주도가 각 1.1%(2개소)로 가장 적었다. 응답자는 언어발달지도사(85%)가 가장 많았으며, 사업관리자나 팀장(15%)이나 센터장(0.5%)도 포함되었다. 언어발달지도사의 경우, 154명

중 언어재활사 자격을 가진 응답자가 65%로 가장 많았고, 언어재활사 및 기타 자격 소지자(18%), 보육교사 자격 소지자(8%) 순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에서는 2025년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수혜 아동 수, 아동의 평균 수혜 기간, 대기 아동 수와 같은 일반 운영 현황을 개방형으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 운영 성과는 5점 리커트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이때 측정된 사업의 효과 및 만족도는 서비스 제공 실무자가 지각한 효과와 만족도로 한정하였다. 실무자 응답 기반의 만족도는 센터나 프로그램 혹은 실무자 자신에 대한 평가로 인식될 수 있어 자기 정당화에 따른 긍정적 편향이나 과대평가의 가능성을 내포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어가 유창하지 않은 다문화가족 부모의 경우 자녀의 언어발달 변화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거나 보고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본 사업은 언어평가를 기반으로 언어발달지도사가 수혜 아동의 개선 정도와 서비스 지속여부를 직접 판단하는 구조로 운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다수의 아동을 장기적이고 전문적으로 관찰해 온 실무자의 경험적 평가는 기존 정량 지표가 포착하기 어려운 통합지원체계의 실질적 기능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학술적 의미를 지닌다.

사업의 필요성은 ‘귀하가 근무하시는 지역에서 본 사업 프로그램의 필요성 정도를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을 통해 총 5개 항목(전반적 필요성,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부모교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지역 내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업의 효과성은 ‘본 사업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을 통해 총 5개 항목(전반적 효과성,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 부모교육)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이 매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사업의 만족도는 ‘귀하는 본 사업의 수혜자들(아동, 부모)이 사업에 대해 만족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단일 문항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점수가 높을수록 실무자들이 느끼기에 다문화가족 자녀

표 1. 심층면담 대상자의 배경정보

직책	참여자	연령	성별	지역 권역	현 센터 근무기간	언어발달지도 총 경력	담당 아동 수	센터 내 언어발달 지도사 수
언어 발달 지도사	A	50대	여	충청권	9년	9년	9~10명	1명
	B	50대	여	강원권	16년	16년	8명	1명
	C	20대	여	호남권	4년	4년	8명	4명
	D	40대	여	영남권	1년 4개월	11년	11명	1명
	E	30대	여	수도권	6년	6년	12명	1명
센터 실무자	F	50대	여	충청권	12년 3개월	-	5명	-
	G	50대	여	수도권	15년	-	10명	1명

언어발달지원사업에 참여한 수혜자들은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생각함을 의미한다.

실무자가 인식하는 운영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총 7명의 사업 운영 실무자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표 1 참조). 연구 대상은 질적 연구 최소 인터뷰 인원인 6명(Guest, Bunce, & Johnson, 2006)을 기준으로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추천을 받아 모집하였다. 근무 경력과 사업 운영 기간, 지역, 자발적 참여 의사 등을 고려하여 최종 언어발달지도사 5명과 센터 실무자 2명을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면담 참여자는 전원 여성이며 50대가 가장 많았으나 20~40대도 포함하여 세대 혼합 구조를 형성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 센터 근무 기간은 1년 4개월에서 16년까지 다양하였고, 평균 9년이였다. 언어발달지도사는 보통 8~12명의 아동을 담당하고 있으며, 대다수 센터에서 언어발달지도사는 1명이 근무하고 있었으나 언어발달지도사가 없거나 4명이 근무하는 센터도 포함되었다.

심층면담에서는 면담자의 기본 배경정보를 확인하고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한 인식을 4개 항목(전체,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의 측면에서 개방형으로 질문하였다. 또한 운영상의 어려움과 생각하는 개선 방안을 개방형으로 질문하여 응답자가 자유롭게 답변하도록 하였다.

3. 분석방법

첫째, 연도별 운영 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2020~2024년 초기면담,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의 수혜자 수 및 운영 횟수를 점검하였다. 연도별 총 실적과

1인 평균 서비스 수혜 횟수를 산출하여 기술통계에 기반한 시계열적 흐름을 검토하였다. 둘째, 지역별 운영 현황 비교를 위해 2024년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별 현황을 비교하고, 인구 규모(대·중·소도시)에 따른 재분류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지역적 인프라 차이에 따른 서비스 개입 강도 및 운영 패턴의 형평성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셋째, 2025년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운영 현황,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만족도 및 개선 의견 문항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객관식 문항은 SPSS 29.0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를 통해 경향성을 파악하였다. 개방형 문항은 필요성-효과성을 범주화하여 의미 해석을 병행하였다. 넷째, 실무자가 인식한 운영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기본 정보, 사업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인식, 운영상의 경험과 개선의견 등을 분석하였다. 질적 분석 과정에서 연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쳤다. 심층면담 자료는 참여자의 동의를 받아 녹음 후 전사되었으며, MAXQDA 24 프로그램을 활용해 분석을 진행하였다. 이를 위해 전사 자료를 반복 숙독하며 개방 코딩을 실시하여 의미 있는 원자료를 추출하였다. 이후 연구자 간 교차 검토 회의를 통해 코딩의 적절성을 확인하였으며 지속적인 논의와 합의 과정을 거쳐 코드를 통합하고 수정하였다. 도출된 하위 코드들은 사업의 효과와 의미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상위 주제로 묶어 범주화하였고, 이 정련 과정을 통해 최종적인 의미와 핵심 기준을 도출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연도별 운영실적과 지역별 운영실적을 비교하였으며, 2025년 운영 현황을 분석하였다.

1)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연도별 운영실적 추이: 2020 ~ 2024년

본 사업의 내용인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뿐만 아니라 초기면담은 본 사업에 참여하고자 아동과 부모가 첫 방문했을 때 진행되어 발육이나 서비스 이용 여부 판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살펴보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에 최근 5년간의 운영실적을 초기면담, 언어평가, 언어교육, 부모상담으로 나누어 수혜 아동 실인원 수와 연인원 수 추이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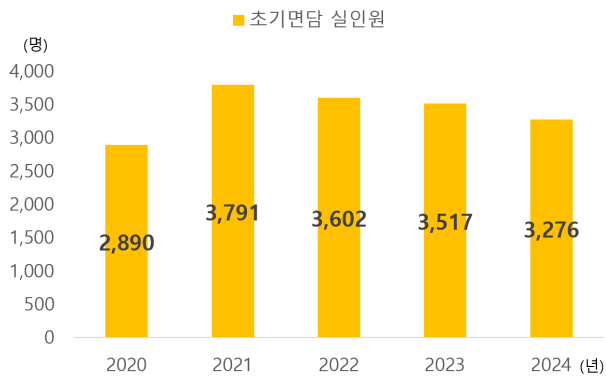


그림 1. 초기면담 운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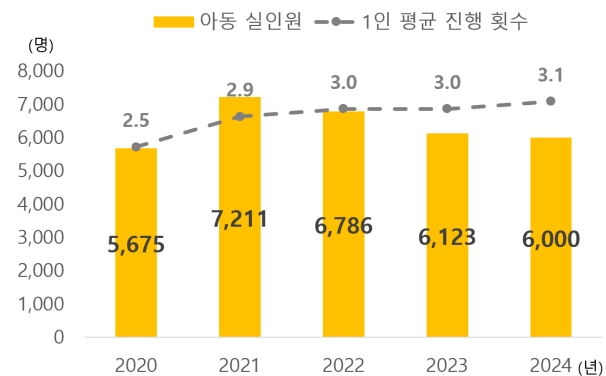


그림 2. 언어평가 운영 추이

초기면담 실인원은 2020년 코로나-19 이후 빠르게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다(그림 1 참조). 2021년(3,791명)에는 2020년(2,890명)에 비해 인원이 크게 반등한 뒤, 3,000명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였다. 언어평가 1인 평균 진행 횟수는 2020년 2.5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전 기간 3회 내외로 유지되었다(그림 2 참조). 연도별 평가 총량의 변동과는 별개로 아동 1인당 평가 빈도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이후 진행되는 교육과 상담 역시 일정한 흐름 속에서 운영된 것으로 보인다. 언어교육의 1인 평균 진행횟수 역시 2020년 21.3회에서 코로나-19 이후 증가하여 평균 36회 ~ 39회를 유지하였다(그림 3 참조). 전 기간에서 개별교육은 1인 평균 34.5회, 모듬교육은 평균 19.9회로 나타났다. 전체 교육 횟수 대비 개별·모듬교육 진행 비율을 분석한 결과, 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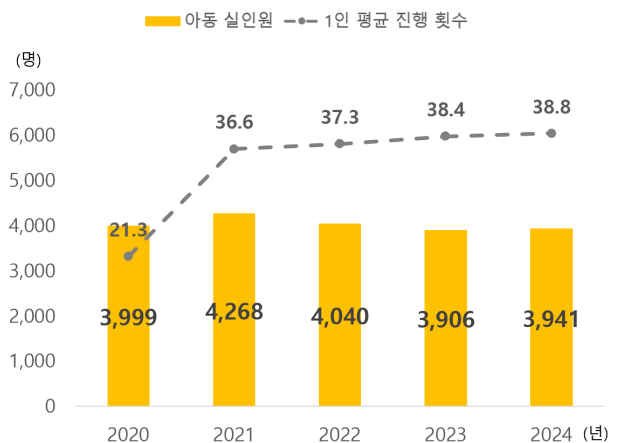


그림 3. 언어교육 운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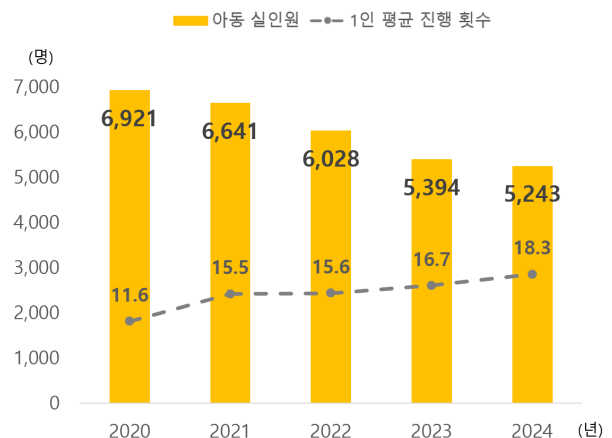


그림 4. 부모상담 운영 추이

별교육이 99.2%, 모둠교육이 0.7%로 개별교육이 주된 형태이며 모둠교육은 보완적으로 진행되었다. 아동 1인의 부모상담 진행 평균 횟수 또한 코로나-19 이후 2020년 11.6회에서 2021년 15.5회로 급반등한 모습을 보였다(그림 4 참조). 실인원은 감소하였으나 부모상담 횟수는 2021년부터 꾸준히 상승하며 아동 1인 평균 상담횟수가 2024년에는 1인 평균 18.3회로 나타났다.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지역별 운영실적 비교: 2024년

지역별 운영실적을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본 사업은 총 190개 센터에서 운영되었고, 총 326명의 언어발달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었다. 행정구역별 운영현황을 살펴보면, 전국 17개 권역 전반에 걸쳐 사업이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특히, 경북(11.1%), 전남(10.5%), 경남(10%) 등 비수도권 운영 비중이 수도권(서울 10.5%, 경기 13.7%)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

타나 본 사업이 전국 단위에서 비교적 균형 있게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언어발달지도사 1인당 초기면담 수는 평균 9.8회였으며, 경북(11.7회)이 가장 많고 충북(6.8회)이 가장 적었다.

다음으로, 행정구역별 인구 수를 기준으로 50만 명 이상은 대도시, 5만 명 이상에서 50만 명 미만은 중도시, 5만 명 미만은 소도시로 분류해 지역 규모별 운영실적을 비교하였다. 대도시는 운영센터 설치율이 높고(행정구역 대비 91.3%), 중·소도시는 센터 설치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각 70% 내외). 초기면담 수는 중도시(2,371명)가 대도시(555명)와 소도시(351명)에 비해 많았으나 지도사 1인당 면담 수는 대도시(12.1회)가 가장 높고 중도시(10.1회)나 소도시(7.8회)가 상대적으로 낮았다(그림 5 참조). 언어평가의 경우, 수혜 아동 1인 평균 진행 횟수는 대도시 3.2회, 중·소도시 3회로 지역 규모 간 빈도의 차이는 미미한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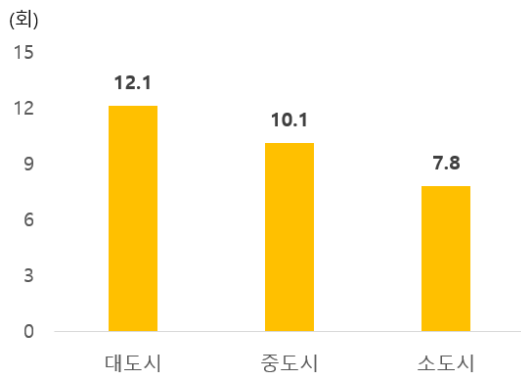


그림 5. 지역규모별 2024년 초기면담 지도사 1인당 진행횟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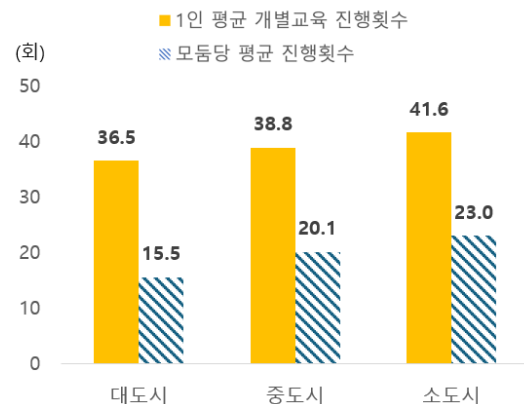


그림 7. 지역규모별 2024년 언어 개별 및 모둠교육 진행횟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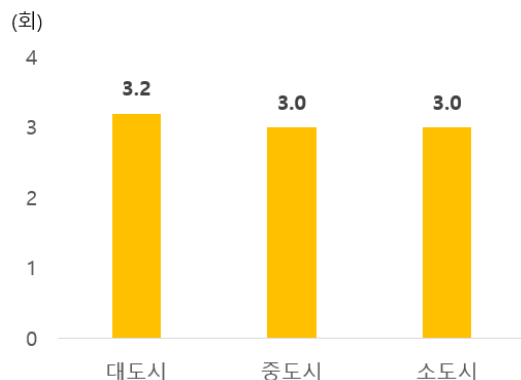


그림 6. 지역규모별 2024년 언어평가 아동 1인 평균 진행횟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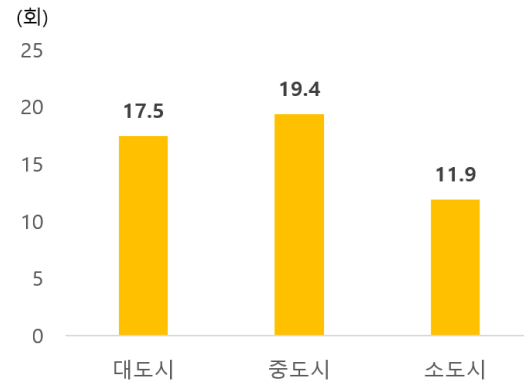


그림 8. 지역규모별 2024년 부모상담 아동 1인당 평균 진행횟수 비교

으로 나타났다. 즉 평가 빈도와 절차가 전국적으로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그림 6 참조). 언어교육은 지역 규모와 관계없이 개별교육이 전체의 대부분(99.2%)을 차지하였다. 특히 대도시 36.5회, 중도시 38.8회, 소도시 41.6회로 나타나 소도시의 1인 평균 개별교육 횟수가 가장 높았다(그림 7 참조). 부모상담은 중도시(19.4회)가 소도시(11.9회)의 약 1.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 참조). 소도시는 부모상담 평균 진행 횟수가 낮지만 언어 개별교육 진행 횟수가 가장 많았던 것을 고려할 때, 부모를 통한 간접 지원보다 아동에 대한 직접 개입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2025년

2025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담당 실무자를 대상으로 운영 관련 기본 정보와 사업 운영의 필요성, 효과성 및 만족도를 조사하였다. 먼저, 사업 운영 관련 기본 정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국 약 93%의 센터에 최소 1인 이상 언어발달지도사가 배치되었고, 미배치 센터는 약 7%(12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배치 센터는 외부 민간 치료센터와 연계하여 본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다. 둘째, 본 사업 수혜 아동의 약 80%(2,107명)가 미취학 연령대였다. 나머지 약 20%(565명)는 학령기로 나타났다. 셋째, 수혜 아동의 평균 78%가 6개월 이상 수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혜 기간 평균은 17.4개월로, 최단 3개월부터 최장 24개월까지 탄력적인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넷째, 센터 당 대기 아동은 평균 15명으로, 대기 아동이 없는 곳부터 144명에 이르는 곳까지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이들

의 평균 대기 기간은 약 11.6개월로, 대략 1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또는 규모에 따라 대기 기간 없이 사업을 수혜 받는 경우도 있었으나, 최장 30개월 대기가 필요한 지역도 있었다. 다섯째, 서비스 진행은 센터 내·외부를 병행하여 진행하는 경우가 약 67%(121개소)였다. 센터 내부만 운영하는 곳은 약 21%(38개소)였고, 센터 외부만 진행하는 곳은 약 13%(23개소)였다. 외부에서 회기를 진행하는 경우, 장소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61%로 가장 많았고, 초등학교 21%, 지역아동센터 8%, 사설 치료센터 6%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및 만족도 결과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2025년 전국 센터에서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는 5점 만점(매우 우수)의 평가 항목에서 필요성 4.8점, 효과성 4.7점, 만족도 4.8점으로 매우 높았다. 또한 표준편차가 작아 현장의 의견 합치도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 프로그램별로 살펴보면, 언어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가장 높았고, 부모교육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2.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실무자가 인식하는 운영 효과

사업 담당 실무자와의 심층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응답 내용은 사업 필요성과 사업 효과성의 두 범주로 구분되었다(표 3 참조). 사업 필요성 범주의 주제는 수요 접근성, 기관 적합성 및 다문화 감수성, 사후관리 및 재유입으로 구분되었고, 사업 효과성 범주의 주제는 아동의 변화 측면과 부모의 변화 측면으로 구분되었다.

각 주제 응답의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수요·접근

표 2. 2025년 센터 실무자가 보고한 사업 운영의 필요성, 효과성 및 만족도

(N = 182)

	필요성	효과성	만족도*
	M(SD)	M(SD)	M(SD)
사업전반	4.86 (0.42)	4.73 (0.53)	4.80 (0.41)
언어평가	4.80 (0.51)	4.69 (0.59)	
언어교육	4.86 (0.42)	4.79 (0.42)	
부모상담	4.64 (0.63)	4.40 (0.81)	
부모교육	4.13 (1.06)	3.79 (1.02)	

주. *언어발달지도사가 관찰한 참여자들의 만족도 수준을 측정함.

표 3. 센터 실무자가 인식하는 운영효과의 범주 및 주제

범주(2)	상위주제(5)	의미 및 기준	하위주제(11)
사업 필요성	수요 · 접근성	서비스 이용을 시작하게 하는 접근 경로에 관한 진술	대기자 과다 센터가 ‘평가 · 교육 · 연계’ 허브 치료실 대신 ‘기관 내 수업’ 선호
	기관 적합성 · 다문화 감수성	가족센터의 다문화 친화성 · 심리적 편안함 · 내부 연계로 인한 지속성 등 기관 적합성에 관한 근거	다문화 친화적 환경 선호 외부치료의 감수성 한계로 센터 선택
	사후관리 · 재유입	종결 뒤 재검사 · 추적 · 재입소 등 사후 흐름과 운영 경험	재검 · 연장으로 관리 사후검사 후 잔여 기간 재활용
사업 효과성	아동 변화	개입 후 아동의 언어 · 학습 · 행동 변화가 관찰 · 평가로 확인된 결과	생활 맥락에서의 적용 · 연계 효과 2년 지원 · 분할 활용의 실효
	가족 · 부모 변화	상담 · 가정 중재를 통해 부모 인식 · 행동과 가정 언어환경이 변한 내용	부모 상담을 통한 태도 · 인식 변화 기관-가정-학교 ‘중간자’ 역할

성 측면에서 실무자들은 언어발달지원사업이 지역사회에서 높은 필요성을 지닌다고 일관되게 인식하고 있었다. 다수의 가족센터에서는 언어발달지원을 받기 위한 대기 인원이 과도하게 발생하고 있었으며, 이는 다문화가족이 자녀의 언어발달을 돕는 교육 · 지원 서비스에 대해 높은 수요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가족센터는 다문화가족 자녀가 언어발달지원을 처음 인지하고 접근하는 주요 경로로 기능하고 있었다. 부모들은 자녀의 언어발달에 대한 우려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센터를 방문한 뒤, 상담 및 평가 과정을 통해 언어치료의 필요성을 자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더불어 다문화가족들은 외부 치료기관보다 가족센터 내에서 제공되는 수업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동의 불편, 치료기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다문화 감수성 부족에 대한 우려 등으로 인해 외부 치료실 연계를 부담스러워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언어발달지도사가 직접 아동의 보육이나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수업을 제공하는 사업 구조는 접근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맥락은 가족센터 기반의 서비스가 다문화가족의 실제 요구와 생활환경에 더욱 부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일단은 다문화 가족을 지원하는 기관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일단 가볼까’ 해서 ‘여기에서 이제 언어 치료라는 게 있구나’, ‘아이들한테 도움

이 되는 게 있구나’ 해서 언어 치료 대기를 하고 수업을 받으시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참여자 E)

둘째, 기관 적합성 · 다문화 감수성 측면에서 본 사업은 다문화가족에게 심리적 안정감과 신뢰를 제공하는 환경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가족센터는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와 높은 다문화 감수성을 바탕으로, 부모들이 자녀의 한국어 발달과 관련된 부담감이나 죄책감을 비교적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심리적 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들은 부모들이 외부 치료기관에서는 문화적 편차나 낙인감으로 인해 상담을 주저하는 반면, 가족센터에서는 직원들의 이해도와 수용적 태도 덕분에 자연스럽게 지원을 요청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가족센터가 지역사회 요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한 측면으로 나타났다. 지역기관 내 요구 조사에서 결혼이민자 가정은 자녀 양육 서비스 중 자녀 언어발달지원 및 이중언어 교육을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는 매년 각 센터에서 실시하는 요구도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확인되었다. 그리고 가족센터의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외국인 자녀나 난민 자녀처럼 바우처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 특정 집단에게 실질적 접근이 가능한 거의 유일한 지원체계로 기능하고 있었다. 최근 다양한 외국인 가정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공적 바우처 제도의 혜택을 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족센터

를 통한 언어발달지원은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치료실에 있는 치료사가 다문화 감수성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상처를 받으시고, 이중언어 환경이나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좀 떨어져서 ‘그냥 여기서 하겠다’, ‘기다리겠다’ 이러시는 분들도 있고요.” (참여자 B)

셋째, 사후관리와 재유입 측면에서, 본 사업은 아동의 발달을 단기적 변화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속적으로 살필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 사업 종결 이후에도 정기적인 재검사와 추적관리가 이루어지며, 필요시 다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었다. 또한 사후검사 결과에 기반하여 서비스 잔여 기간을 탄력적으로 재조정할 수 있는 운영 방식은 아동의 맞춤형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으로 언급되었다. 사업은 2년이라는 서비스 총량을 아동의 발달 속도와 변화에 따라 나누어 사용하거나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러한 운영 유연성은 중간 평가에서 일정 기간 사용을 중단한 뒤, 이후 필요성이 확인되는 시점에 잔여 기간을 재활용하는 형태로 이어지며, 결과적으로 아동의 지속적 발달을 지원하는 데 실질적 효과를 보였다.

“6개월에 두 번 하는 건 아이의 발달에 큰 변화가 사실 없고. 졸업하고 나서, 그래서 1년에 한 두 번 정도? 혹은 저는 이제 졸업한 아이들은 리스트를 가지고 있다가 영유아기에 종결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령기 정도 됐을 것 같으면 ... 전화해서 다시 검사를 오시라고 해요. 그래서 다시 검사를 하면 다시 점수가 낮아지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학령기 저학년, 1학년쯤 가면 또 이제 읽기, 쓰기 검사도 해야 되고 읽기 이해 부분도 검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이 다시 수업 대상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참여자 B)

넷째, 아동의 변화 측면에서는 언어발달 지원 개입 이후 아동의 언어능력뿐 아니라 학습 및 행동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관찰되고 평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실무자들은 발화가 거의 없던 아동이 2년간의 개입 후 초등학교에 문제없이 입학한 사례나, 경계선 지능을 가진 아동이 사회성 영역에서 뚜렷한 발전을 보여 학교 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성장한 사례 등을 제시하며, 개입 효과가 실제 발달 수준 향상으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언어능력의 향상은 단순한 의사소통 능력의 증진을 넘어 또래 관계 형성, 사회적응 능력 향상, 그리고 학습 도구로서의 언어 기능 강화로 이어졌다. 더불어, 최장 2년까지 제공되는 서비스 기간을 아동의 발달 변화에 따라 분할해 활용할 수 있는 구조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는 요소로 평가되었다. 필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개입하고, 발달 상황을 지켜보아야 하는 시기에는 기간을 남겨두었다가 다시 지원할 수 있는 방식은 사후관리의 근거를 확보하고 지속적인 관찰·평가를 가능하게 하였다.

“언어 치료의 최종 목표는 저랑 치료실 내에서 그 치료를 한 내용이 밖에서 잘 활용이 되는 게 최종 목적이거든요. ... 저랑 처음에는 학교에서도 집중을 어려워하고 앉아 있는 것도 어려워하는 친구였는데 이제 저랑 착석부터 연습하고 이제 수업 시간 집중하는 거 아니면 글씨 쓰는 거 이런 거 이제 다 이제 연습해 보니까 점점 발전되는 모습을 같이 볼 수 있었어요.” (참여자 E)

다섯째, 가족 및 부모의 변화 측면은 부모 상담을 통해 부모의 양육 행동이나 인식이 변화하고 아동의 변화를 통해 가족 내 상호작용이 개선되는 모습으로 확인되었다. 실무자들은 부모 상담과 가정 중재를 통해 부모가 언어발달의 중요성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고, 가정 내 언어환경이 개선되는 과정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가정에서 아동의 발화가 시작되면서 부모의 정서적 부담이 완화되고, 어머니의 우울 증상이 호전되거나 아버지의 양육 참

여가 증가하는 등 아동 개인의 변화가 가족 전체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는 사례가 여러 실무자의 면담을 통해 공통적으로 수집되었다. 이와 같이 교차 확인된 실무자들의 생생한 경험적 진술은 본 사업이 단순한 아동 중심 개입을 넘어 다문화가족의 전반적인 가족 기능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이 지원받고 나서 아이가 이제 막 집에서 노래도 부르고 다니고 누나랑 조분조분 애기도 하고 막 시끄럽게 떠드니까 아버님이 변해요. 처음에 아버님이 센터 가는 거를 막으셨었거든요. ‘센터 가지 마라’ 하고. 그래서 외부 활동하는 거를 되게 부정적으로 보셨던 분인데 이런 효과를 보기 시작하면서 요즘은 축제를 오거나 운동회를 와도 아버님이 아이들만 데리고 오세요.”(참여자 G)

“센터에서 수업하는 아동들은 부모님이랑 같이 오시기 때문에 부모님과 상담도 자주 할 수 있고 아동이 어떻게 해주면 되는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런 거를 매일매일 오실 때마다 얘기해드릴 수 있고 또 이제 제가 외부 수업이 많거든요. 외부 수업에 갔을 때도 그 외부에 있는 선생님과 교류를 했을 때, ‘이 아동한테는 어떠한 자극을 해주면 좋다’, ‘지금 아동 수준이 이렇다’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면 그 선생님도 교육하기가 조금 더 편해지셔서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참여자 D)

더불어 언어발달지도사는 아동의 언어교육을 담당하는 역할을 넘어, 기관-가정-학교를 연결하는 중간자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무자들은 지도사가 가정에서의 언어환경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언을 제공하는 동시에, 학교와의 소통을 통해 아동의 발달을 다각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하였다. 이러한 역할 수행은 가정·학교·기관 간 정보를 통합하고, 아동의 전반적 생활 발달을 고려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중간 다리 역할로 작용하였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운영 현황 및 효과를 정량적·정성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를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운영의 지속성 측면에서 연도별 운영 흐름을 살펴본 결과, 코로나-19 이후 본 사업은 전반적으로 빠르게 정상화되었으며 운영의 안정성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면담은 코로나-19 이후 2021년 실인원이 크게 반등하여 3,000명 이상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팬데믹 직후 일시적인 감소가 있었으나 사업 참여에 대한 수요가 회복되고, 초기 단계에서의 이용자 유입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언어평가의 경우, 연도별 총량 변화와 무관하게 아동 1인당 진단 빈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었는데 이는 시대적 흐름이나 기관 여건과 관계없이 진단 기준이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언어교육은 코로나-19 이후 개입 강도가 확대되었는데, 거의 모든 교육이 개별 형태로 이루어져 맞춤형 접근이 사업 운영의 기본 구조로 자리 잡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개별 아동의 특성과 수준을 반영한 개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입 강도의 확대가 실제 언어 능력 향상이나 발달 결과의 개선으로 이어졌는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운영 지표만으로는 충분히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부모상담 역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며, 본 사업이 단순한 교육 제공을 넘어 가정의 언어환경 개선과 부모 양육역량을 함께 다루는 통합적 개입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종합하면 코로나-19 이후 본 사업은 신속한 회복과 안정적 유지, 개별화된 교육의 강화, 가정 중심 지원 확대라는 특징을 보이며, 중장기적으로 사업 구조가 보다 체계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서비스 접근성과 형평성 측면에서 지역별 운영 실적을 종합하여 살펴본 결과, 본 사업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전역에 고르게 운영되며 전국 단위에서 접근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17개 권역에 걸쳐 가족센터와 언어발달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수도권에 운영이 집중되지 않고 비수도권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운영 규모가 확인되었다. 이는 지역적 편차로 인한 서비스 접근 격차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경향을 보여준다. 그러나 지역 규모에 따라 운영 방식의 특징이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에서 지역별 수요와 자원 조건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도시는 높은 센터 설치율을 기반으로 광범위한 수요를 흡수하는 허브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고, 중도시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생활권 단위의 안정적인 수요가 지속되는 운영 구조를 보였으며, 소도시는 아동 1인당 개별교육 횟수가 가장 높았는데, 도심 간 이동 거리가 길고 민간 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적어 가족센터 중심의 개입이 강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는 지역 여건에 따라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과 개입 방식이 자연스럽게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지역별 운영 특성이 분명하게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사업 운영 구조는 비교적 표준화된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별 수요와 자원 조건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특히 소도시에서 나타난 높은 개별교육 횟수는 충분한 서비스 제공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동시에 민간 자원의 부족을 공공 서비스가 보완하는 구조적 결과일 가능성도 함께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한편 언어평가의 1인당 평균 진행 횟수는 지역 규모와 무관하게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진단 절차가 지역 간 자원 격차나 운영 여건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과 프로세스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지역적 여건에 따라 운영 방식의 세부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지만, 핵심 서비스인 진단·교육의 표준화된 절차가 전국적으로 균일하게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서 형식적 형평성은 확보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서비스 제공의 균등성이 일정 수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 서비스의 질이나 개입 효과의 균등성으로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해석이 요구된다.

셋째, 개입 방식의 적절성 측면에서 2025년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본 사업은 단기적 개입이 아니라 장기적·연속적 지원을 통해 아동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센터에 언어발달지도사가 배치되어 있으며, 지도사가 없는 일부 센터 역시 외부 전문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여 운영 공백이 최소화되고 있었다. 또한 상당수 아동이 6개월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며, 평균적으로 1년 이상 꾸준한 개입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업이 일회성 언어 촉진이 아닌 지속적 발달 지원 체계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수혜 대상은 미취학 연령 아동의 참여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9년부터 2015년까지의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언어평가에 대해 분석한 연구(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6)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이를 통해 발달의 민감기에 있는 아동을 조기에 개입하는 구조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 방식도 단순 센터 내 교육을 넘어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아동의 생활 공간과 연계된 형태가 널리 활용되어, 개입이 일상 맥락 속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였다. 이는 언어교육의 효과가 실제 생활 장면으로 확장되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으로 작용한다.

아울러 본 사업을 운영하는 실무자들은 사업 전반의 필요성과 효과, 만족도를 높게 평가하였다. 그중에서도 언어교육이 가장 핵심적인 개입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2016년까지 언어발달지원 서비스 수혜 대상자에게 직접 조사한 만족도가 5점 만점 중 4.7점인 것과 유사하게 나타났다(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7). 이러한 인식은 본 사업이 언어능력 향상뿐 아니라 조기 개입의 안정성, 생활 맥락 중심의 운영 구조, 그리고 현장에서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속적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시사한다. 즉, 본 사업은 조기 개입을 기반으로 장기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생활 맥락과 연계된 개별화된 접근을 통해 아동과 가족을 동시에 지원하는 통합적 개입 구조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운영 구조가 실제 발달 성과로 어느 정도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유지 및 확장되는지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지속적인 추적이 요구된다. 즉 조기 개입의 장기적 효과, 생활 맥락 기반 개입의 실제 적용 결과 및 수혜자 경험을 포함한 다층적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통합지원체계의 기능성 측면에서 실무자의 인식을 통해 확인된 운영 효과를 살펴보면,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아동의 언어능력 향상뿐만 아니라 학습 태도, 행동, 사회 적응과 같은 다양한 발달 영역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개입으로 기능하고 있었다. 동시에, 부모 상담과 가정 중재를 통해 부모의 인식과 양육 태도 역시 변화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부모는 언어발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정 내 언어환경을 개선하며, 자녀의 변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양육 효능감이 증진되는 모습을 보였다. 즉, 본 사업이 아동 개인 수준을 넘어 가족 단위의 변화를 유도하는 통합적 개입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수혜자 중심으로 심층면담한 결과 본 사업이 많은 아동들의 실질적 의사소통 능력을 개선하고 사회 적응을 돕는 데 효과적이었다고 보고한 연구(정경희 등, 2015)와 일치한다. 또한 본 사업이 조기개입을 통해 정상적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동은 또래관계, 부모관계, 사회성 향상 등 자신감이 향상되고 가정의 분위기도 밝아졌다고 보고한 연구(김수진, 윤철수, 2015)와도 맥을 같이한다. 아울러 언어발달지도사는 가정과 학교를 잇는 중간 다리로서 아동의 언어·학습·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특히 본 사업은 유사 언어치료 서비스 접근이 어려운 외국인·난민 가정 등 제도적 사각지대에 있는 집단에게 실질적으로 열려 있는 거의 유일한 지원 창구로 기능하였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의 접근 장벽을 낮추고, 기존 서비스 체계가 포괄하지 못하는 영역을 보완하는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이는 본 사업이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을 넘어 사회적 안전망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동시에 이러한 역할이 지속가능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인력 운영과 재정 지원 및 성과 관리가 함께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약 16년 이상 지속되어 온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지속 필요성을 논리적으로 재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이론적·실천적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론적·실천적 함의 측면에서 본 연구는 그동안 실적 중심의 보고 체계로 인해 파악하기 어려웠던 운영 추이와 지역별 편차를 구체적 자료 분석을 통해 드러냄으로써 본 사업이 코로나-19 이후에도 안정적 운영 구조를 유지해 왔음을 검증하였고 전국적 접근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였다. 아울러 본 사업이 다문화가족 자녀의 언어발달을 조기에 개입하여 지원하는 사회서비스로서 직접적으로는 아동의 언어·사회·정서 영역을 포함한 전인적 발달을 촉진하고 간접적으로는 부모의 인식 변화, 가정 내 언어환경 개선,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과 통합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통합적 관점에서 규명하였다는 점도 중요한 의의로 볼 수 있다. 둘째, 정책적 시사점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사업의 효과와 안정성을 보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향후 보다 정교한 성과 검증과 운영 구조의 고도화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특히 현재의 운영 평가 체계는 서비스 제공량 중심으로 관리되고 있어 실제 발달 성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이에 따라 성과 중심 평가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또한 조기 개입의 장기적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중단 데이터 구축,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전략 마련, 그리고 수혜자 중심의 평가체계 도입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의 운영 현황과 효과를 다각도로 분석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실적 통계에 의존함에 따라 개별 센터나 수혜 대상자 특성에 따른 운영 차이를 미시적으로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특히 2016년 이후 본 사업의 보고 체계가 개별 아동의 사전·사후 평가나 원자료가 아닌 평가 및 교육 횟수 중심의 총량

실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집단 간 분산을 확인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이 존재한다. 향후에는 표준화된 평가도구를 바탕으로 초기-종결-사후 평가를 일관되게 기록하는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장기 종단 DB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본 연구는 주로 언어발달지도사와 센터 실무자의 관점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수혜자인 아동과 보호자의 직접적 경험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 이는 사업 효과를 해석하는 데 있어 일정한 편향 가능성을 내포한다. 즉, 본 연구에서 확인된 만족도와 성과는 구조적으로 긍정적 응답이 중심이 되거나 실무자 관점의 자기 정당화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부모 대상 조사와 심층면담을 포함하여 서비스 경험을 다층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

종합하면,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운영 구조와 높은 현장 신뢰를 기반으로 의미 있는 사회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양적 확대를 넘어 실질적 성과 검증과 질적 고도화를 중심으로 한 정책적 전환이 요구된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개선은 본 사업이 아동 개인의 발달을 넘어 가족과 지역사회 수준에서의 통합적 지원체계로 보다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사업의 운영 현황과 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보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언어발달지원사업 운영을 위한 정책적 개선 논의를 뒷받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강해수, 최소영 (2020). 다문화가정 아동의 읽기 특성에 대한 인지·언어학적 접근 연구운동추적방법의 적용 가능성. *특수교육논총*, 36(3), 21-41.
<https://doi.org/10.31863/JSE.2020.12.36.3.21>
- 김수진 (2015). 다문화 아동의 의사소통 문제 현황 조사연구. *언어치료연구*, 24(3), 89-102.
<https://doi.org/10.15724/jslhd.2015.24.3.008>
- 김수진, 윤철수 (2015). 다문화 언어발달지도사의 역할 수행 평가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특수교육*, 14(1), 81-97.
- 김영은 (2014). 교과교육학 다문화청소년의 학교생활경험 연구에 대한 비판적 분석. *윤리교육연구*, 33(0), 53-81.
- 박소연, 홍성만 (2016). 정부지원사업 평가지표 개선 연구: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에 고전검사이론의 문항분석 적용. *정책분석평가학회보*, 26(4), 51-70.
<https://doi.org/10.23036/kapae.2016.26.4.003>
- 박순희 (2009). 다문화가족 아동의 특성과 사회적응. *한국아동복지학*, 29, 125-154.
- 박은정 (2022). 다문화 영유아의 이중언어 사용 영향 요인 및 지원 방안. *육아정책연구소 2022년 이슈페이퍼*(4).
- 박희현, 최은영, 이영애 (2025). 코로나 19 이후 아동 임상 사례에서 나타난 영유아 및 초등 저학년의 언어 및 인지발달의 변화. *한국놀이치료학회지(놀이치료연구)*, 28(1), 21-45. <https://doi.org/10.17641/KAPT.28.1.2>
- 양윤희 (2024). 다문화 일반아동 및 언어발달지연아동의 정서행동적 특성과 언어능력 간 관계. *다문화교육연구*, 17(3), 131-148. <https://doi.org/10.14328/MES.2024.9.30.131>
- 여성가족부. (2021).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1-2025).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5a). 2024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 서울: 여성가족부.
- 여성가족부. (2025b). 2025년 가족사업안내. 서울: 여성가족부.
- 유민애 (2018). 언어 사용 환경에 따른 다문화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 척도 조사. *국어교육연구*, 42, 291-321.
<https://doi.org/10.17313/jkorle.2018.42.291>
- 임정하, 김정은, 민성혜, 김리진, 정은미 (2013).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만족도 척도 개발 및 타당화 연구. *인간발달연구*, 20(1), 101-117.
- 장희정, 김가림, 황민아 (2025). 학령기 다문화가정 아동의 어휘 판단에서 단어빈도 효과. *특수교육논총*, 41(1), 101-117. <https://doi.org/10.31863/JSE.2025.02.41.1.101>
- 정경림, 김선미, 윤상용 (2022). 다문화청소년의 사회적 자본이 학교중단위험에 미치는 영향 잠재성장모형을 활용한 종단연구. *GRI 연구논총*, 24(4), 249-270.
<https://doi.org/10.23286/gri.2022.24.4.010>
- 정경희, 황상심, 배소영, 김미배 (2015).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촉진교육 효과에 대한 질적 연구. *언어치료연구*, 24(4), 361-378. <https://doi.org/10.15724/jslhd.2015.24.4.033>
- 정옥분 (2015). 전생애 인간발달의 이론(제3판). 서울: 학지사.
- 최은영 (2015). 다문화가정 영유아 교육·보육정책 현황 및 과제. *현대사회와다문화*, 5(2), 161-180.
- 통계청. (2025). 인구로 보는 대한민국 인구상황판. <https://kosis.kr/visual/populationKorea/PopulationDashboardMain.do>에서 2025년 11월 20일 인출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6).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 아동 평가분석. 서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17). 2016년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한국건강가정진흥원. (2024). 2023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별도지원사업 연간결과보고서. 서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 황상심 (2017). 이중언어아동의 교육 서비스 지원을 위한
언어발달지도사의 요구 탐색. 언어치료연구, 26(1),
145-160. <https://doi.org/10.15724/jslhd.2017.26.1.013>
- 황상심, 강복정 (2016). 다문화아동의 이중언어사용 추이
연구. 언어치료연구, 25(1), 123-134.
<https://doi.org/10.15724/jslhd.2016.25.1.012>
- 황상심, 정옥란 (2008). 농촌지역 다문화가정아동들의 언어
특성관련 상관 연구. 언어치료연구, 17(1), 81-102.
<https://doi.org/10.15724/jslhd.2008.17.1.005>
- Arbib, M. A. (2017). "Language and brain: Developmental
aspects:" Eric lenneberg at the neurosciences research
program in 1972. *Biolinguistics*, 11, 463-480.
<https://doi.org/10.5964/bioling.9111>
- De Houwer, A. (2007). Parental language input patterns
and children's bilingual use. *Applied psycholinguistics*,
28(3), 411-424.
[https://doi.org/10.1017.S0142716407070221](https://doi.org/10.1017/S0142716407070221)
- Friedmann, N., & Rusou, D. (2015). Critical period for
first language: The crucial role of language input during
the first year of life. *Current opinion in neurobiology*,
35, 27-34. <https://doi.org/10.1016/j.conb.2015.06.003>
- Guest, G., Bunce, A., & Johnson, L. (2006). How many
interviews are enough? An experiment with data satu-
ration and variability. *Field Methods*, 18(1), 59-82.
<https://doi.org/10.1177/1525822X05279903>
- Lenneberg, E. H. (1967). *Biological foundations of language*.
New York, NY: Wiley.